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 다양한 서비스 제공



실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찾아가는 영유아 구강교육



보육인 가족 음악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 3명의 여직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활짝 웃으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맞이한다. 사전예약도 없이 방문한 기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이 곳은 영·유아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 문화 체험의 장소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윤진주)이다.

지난 2013년 옛 KBS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개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8월 호남권 1호 시 센터로 개관한 곳이다.

군산시가 설치·지원하고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 운영하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명을 비롯해 보육전문요원 3명, 운영요원 2명이 운영을 맡고 있다.

센터에서는 '색다른 육아가 세상을 리드한다'는 철학으로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가 실현되도록 다양한 보육사업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지원 육아지원 행정지원,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육아 카페, 부모·자녀 관계 증진 체험실 등을 운영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

센터는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 전문가들이 One-Stop 육아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들에게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공동 교육사업 무료 진행 장난감 도서관·아이누리 실내 놀이터 운영 무료 육아 상담·영유아 발달 검사 시행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해년도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은 ▲일반사업 ▲보육지원사업 ▲육아지원사업 ▲영유아 발달검사 및 상담사업 ▲시간제 보육사업 등 이다.

일반사업으로는 어린이행복도시에 걸맞게 관내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놀 권리' 포스터 공모전 및 캠페인을 실시해 영유아 놀이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한 놀이 문화 확산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지역사회 내 전문가 및 기관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산소방서와 MOU 협약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에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공동 교육 사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색다른 육아가 세상을 리드한다' 육아 정보지를 제작·배포해 육아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육지원 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표준 보육과정 이해 교육과 아동관리 및 안전교육,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교육, 교사 매너교육, 부모 상담에 필요한 상담 기술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법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는 18일 군산시 보육교직원 1,500명을 대상으로 군산시민공민센터에서 대규모 안전교육이 실시할 예정이다.

육아지원 사업으로는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를 운영 하고 있다.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1,300여명으로 하루 평균 100여 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아이누리 실내놀이터는 현재까지 총 12,300명이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273회 4,500여 명의 영유아가 이용했다.

이 두 곳은 정규수업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 발달검사 및 상담 사업으로 자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무료로 육아상담 및 영유아 발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찾아가는 보육교직원 상담서비스'는 보육교직원의 감정 노동 치료 프로그램으로 타시·도 센터의 선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15개소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10명에게 성격유형 검사 및 스트레스 측정 결과를 기초로 집단상담을 진행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간제 보육 사업은 가정육양 수당을 수급중인 자(6~36개월 미만)로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 사업의 관리기관으로써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실내놀이터의 경우 영아와 유아구분된 놀이공간이 없다는 점, 보육교직원의 교육장소가 없는 점 영유아를 고려한 심미적인 디자인과 공간 구성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윤진주 센터장(호원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은 "어린이행복도시를 위해서 군산시와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보태고 있다"며 "보육의 미래 즉 군산시 영유아들의 미래가 밝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아종합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전화(☎063-911-0756) 또는 홈페이지(<http://www.hwgnsan.or.kr/x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